

세계의 공연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I.T.I.의 Zhongwen으로부터 COVID-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공연 예술인의 공동체에 I.T.I. 명예회장으로서 사랑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달라는 Tobias와 Zhongwen 명의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많은 선배와 친구들이 떠나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작인 나에게 그런 부탁이 왔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나에게 대한 격려로 생각되었습니다.

「김정옥 힘내라. 너에게는 아직도 창조적 에너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정신이 반짝 들면서 세계의 연극, 무용, 음악의 공연예술인 (performing art people)에게 「우리의 창조적 삶을 위해 기운을 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자!」

사실 세계적 전염병으로 번져 간 COVID-19와 같은 Pandemic은 우리들 공연예술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공연예술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모두가 한공간에 모임으로서 완성되는 소통의 예술작업이자 창

조적 만남입니다. 그러나 Pandemic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연예술의 창조적 작업을 당분간 단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념은 단순한 단념이라기 보다 창조적 내일의 작업을 위해 창조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이번 COVID-19의 재난은 공연예술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낯은 어제의 이념의 포로가 된 일부 독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상호간의 증오심에서 유발된 갈등은 끊임없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COVID-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공연예술의 너그러움과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의학은 인류의 육체에 대한 치유라면 공연예술은 인류의 정신과 감정의 내면적 치유입니다. 우리 공연예술인의 작업은 COVID-19가 의학적으로 종식되었을 때 감정과 정신의 세계에서 종막을 내릴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강요된 외로운 휴식의 시간은 그 때에 용솨음칠 긍정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웃을 줄 아는 예술가가 진정한 공연예술인입니다. 희극을 비극으로, 비극을 희극으로 꾸밀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금년에는 서로 도우며

웃으면서 조용히 지내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통쾌하게 웃으며 만
납시다.

내일 3월 27일은 세계 연극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4월 29일은
세계 무용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창조적 만남의 날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창조적 만남의 날이 내년에는 곱이 되어 부활될 것
입니다.

「COVID-19가 긍정적 에너지와 관용의 정신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갔
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I.T.I. 명예회장 김정옥